

# 도상해석학 관점에서 고찰한 Vivienne Westwood 패션 작품

윤지영

서울대학교 의류학과 박사

## An Iconological Analysis of the Fashion Works of Vivienne Westwood

Jiyoung Yun

Doctor, Dept. of Clothing & Textiles, Seoul National University

(투고일: 2008. 9. 5, 심사(수정)일: 2008. 12. 26, 개재확정일: 2008. 12. 31)

###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esent the viewpoint on the 'clothes' as a part of art works which has the *kunstwollen*(artistic will) and the philosophy of a creator rather than just an outfit. For the literary research, this study investigates the history of Iconology and the E. Panofsky's theory. In order to make up for the limitation of Panofsky's iconology, applies the theories of H. Gombrich and N. Goodman. For the case research, Vivienne Westwood is selected because her fashion works have been mentioned as the artistic pieces by many fashion critics or the presses. Also Westwood has different social and cultural contexts which based on the periodic background, social influences and cultural actualities. The conclusion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in order to read the symbolic meaning, the *kunstwollen* and the aesthetic consciousness of the fashion designer's works properly, the systematized interpretation method is necessary. Second, the creative works of Vivienne Westwood have been influenced by the various external elements. Especially her national background and identity are the main elements which have governed her creation. Third, Vivienne Westwood creates her works not just to wear but to incorporate the ideology and the philosophy of herself. She expresses the *kunstwollen* and the aesthetic consciousness through her works. Forth, Vivienne Westwood pursues the communication between the human being and the world. Fifth, fashion makes various attempts to combine with different artistic fields. The 21st century fashion has developed to new direction with diverse trials and combinations. Fashion is not just making clothes, but accepting and delivering the history and culture, expressing and communicating empathy, and combining the different fields harmoniously.

Key words: iconology(도상해석학), Vivienne Westwood(비비안 웨스트우드), *kunstwollen*(예술의지), aesthetic consciousness(미의식), aesthetic enjoyment(미적 향수)

## I. 서론

패션은 창작자의 내적 예술의지를 표현하는 하나의 예술적 수단으로서 존재하며 이는 현대의 사회와 문화를 이해하는 중요한 가치를 가지는 분야이다. 역사, 사회, 그리고 문화 속에서 존재하는 패션을 하나의 이미지와 텍스트로 표현하고 이해하며 해석하는 시도는 패션이라는 대상을 통해 우리가 현존하는 사회의 역사와 문화를 간접적으로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다. 또한 다양한 영향 인자에 따른 다양한 결과물을 통해 창작자에 따른 역사, 사회, 문화의 수용 방식의 차이점과 그에 따른 창작물의 차이를 고찰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옷’이라는 도상 안에 내재된 상징성과 관념은 물론 창작자의 예술의지와 미의식의 해석을 통해 현대 패션 작품을 단순한 ‘옷’이라기보다는 창작자의 예술의지와 철학을 담아내고 있는 ‘예술 작품’의 한 분야로서 인식할 수 있는 시각을 제공하고자 함이다. 또한 체계화된 패션 비평의 틀을 제시하고 이를 통해 예술 작품과 창작자, 그리고 관조자의 상호 의사소통을 통해 앞으로 패션이 나아가야 할 방향성을 제시하고자 한다. 더불어 하나의 창작물로서의 ‘옷’을 바르게 읽어내기 위한 체계화된 분석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인지하고자 한다.

본 연구를 위해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첫째, E. Panofsky의 도상해석학 이론과 다양한 도상학자들의 이론을 바탕으로 새로운 도상해석학의 패러다임을 구축한다.

둘째, Vivienne Westwood 패션 컬렉션에 도상해석의 패러다임을 적용시켜 각 단계에 따른 체계적인 분석을 통해 패션 작품의 도상과 그 상징성을 분석한다.

셋째, 패션 도상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요소들을 밝히고 이에 따른 다양한 창작물과의 상관관계를 살펴본다. 이를 통해 디자이너의 예술의지에 따른 표현의 차이와 미의식을 정의 내린다. 또한 관조자의 미적 태도에 따른 상대주의적 시각에 의한 다양한 해석의 의미를 살펴본다.

넷째, 예술로서의 패션의 특수성을 고찰해보고 이를 통해 예술로서의 패션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논의한다.

본 연구를 위한 문헌 연구로는 도상해석학 이론을 체계적으로 정립시킨 대표적 학자인 Erwin Panofsky (1892-1968)의 이론과 도상해석학에 대한 다양한 학자들의 이론을 함께 고찰해 보고자 한다. 이는 E. Panofsky 이론에만 한정된 관점을 지양하고 각 학자들의 이론의 특성과 차이점의 이해를 통해 이를 종합하고 보완하여 패션 작품 분석을 위한 새로운 도상해석의 패러다임을 고안해 보고자 함이다. 이 새로운 패러다임을 통해 창작자와 창작 대상인 ‘옷’, 그리고 이를 바라보고 미적 향수를 공유하는 관조자와의 유동적인 관계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실증적 연구는 영국의 역사와 문화를 자신의 디자인 창작의 근원적인 영감으로 취하고 있는 Vivienne Westwood의 컬렉션을 고찰해 보고자 한다. Vivienne Westwood는 디자이너 자신뿐만 아니라 패션 비평가들과 언론을 통해 그녀의 작품이 하나의 예술 작품이라고 평가받고 있을 뿐만 아니라 시대적 배경, 사회적·문화적 현실의 영향력과 거기에서 비롯되는 다양한 영향 인자들에 의해 영향을 받아 독특한 그녀만의 디자인 세계를 구축해가고 있는 디자이너이기 때문이다.

## II. 도상해석학에 대한 이론적 고찰

### 1. 도상학과 도상해석학

도상학(Iconography)과 도상해석학(Iconology)은 예술 작품의 주제 혹은 의미내용을 형식과 대별하여 다루는 미술사의 한 분야이며<sup>1)</sup> 현대 예술 작품의 내적 의미를 읽어내는 가장 앞선 연구 방법으로 언급되고 있다. 도상학이라는 용어의 의미는 두 개의 그리스 단어, ‘이미지’를 뜻하는 ‘에이콘(eikon)’과 ‘기록하기’를 뜻하는 ‘그라페(graphe)’에서 유래하였다. 따라서 도상학은 한 미술가가 이미지를 기록하는 방법이며 또한 이미지 자체가 기록하는 것, 즉 이미지가

전하는 이야기라고 할 수 있다<sup>2)</sup>. 이와 같이 도상해석학은 작품에 영향을 미치는 외적 영향 요소를 비롯해 작가의 예술의지와 이로 인한 작품 속 상징 의미를 파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도상학’과 ‘도상해석학’은 Cesare Ripa(1560-1623)의 저서 *Iconologia*(1593)를 통해 그 근원을 찾을 수 있다. C. Ripa는 사람의 모양을 모든 것의 기반을 이루는 단위로 선택했으며 특히 여성의 의상, 상징 형태, 제스처, 디테일을 분석했다<sup>3)</sup>. C. Ripa가 사용한 ‘Iconologia’의 개념은 E. Panofsky의 이론에서는 도상학에 해당하는 개념으로, C. Ripa는 세월, 인생, 꿈, 자유, 영원, 환희, 사랑, 진리 등과 같이 추상적인 개념뿐만 아니라 시각, 건축, 관습, 예술 등과 같은 개념들을 이미지화 하기 위해 인물을 중심으로 하는 도상을 만들어내고 그 인물의 의상 형태와 색상, 소지품, 제스처 등이 상징하는 바를 구체적으로 묘사하고 있다. C. Ripa의 저서는 추상개념을 시각화하는 예를 보여주며 이는 알레고리(Alegory)를 재현하는 고전으로 자리 잡게 된다.

그 이후 J. Winckelmann(1717-1768)은 「미술에서의 알레고리에 관한 연구, 1766」를 통해 고전 기념물을 정확히 연구하고 그림의 내용을 밝혀내는 가운데 현대 도상학의 근거를 마련하였다<sup>4)</sup>. 19세기에 들어서 A. Warburg(1866-1929)는 도상해석학을 문화학의 한 분야로 발전시키고 미술을 역사적 삶의 다층적 구조와 연관시켜 연구하였다. 그는 도상학을 포괄적인 문화와 정신과학에 기여하도록 하였다. 19C 후반 이래 차차 고조되어 온 미술사의 자각으로 미술사상에 있어서 역사적인 것과 체계적인 것이 결합하게 되고, 20C에 들어 와서 이 미술사의 방법론은 미술사의 철학으로서 형식사와 정신사로 발전해 갔다<sup>5)</sup>. 형식사와 정신사를 대표하는 H. Wölfflin(1864-1945)과 E. Panofsky는 20세기 초 미술사학계에 커다란 영향력을 행사했던 대표적인 학자들이다. Wölfflin은 사회, 문화적인 요소들과 무관하게 독자적으로 변화하는 양식 개념을 제시하였고, 이와 달리 Panofsky는 한 작품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작품이 제작된 시대의 사회적, 종교적, 철학적 배경 속에서 작품의 내용이 파악되어야 한다고 보았다<sup>6)</sup>. 그는 Hegel(1770-1831)

의 철학을 미술사에 접목시켜 이성주의 미술사를 완성하였으며 A. Regal(1858-1905)의 ‘예술의지(Kunst-wollen)’ 개념을 자신의 이론에 수용하고 있는데 이는 예술 작품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당시대의 사회적·문화적 영향력과 작품 속에 내재한 창작자의 내적의지, 그리고 이에서 비롯되는 정신적 가치의 중요성을 포함시키는 것이다.

## 2. E. Panofsky의 도상해석학

E. Panofsky는 예술작품을 인문학적 종합물로 보고 해석틀(schema)을 통한 역사적 법칙을 적용하였다. E. Panofsky의 도상학은 단순히 도상을 판별하는 방법론이 아니라 예술 작품 속에 내재하는 의미를 풍부한 사회적·문화적 지식을 바탕으로 읽어내고 해석하는 시도인 것이다.

E. Panofsky가 정리한 미술작품의 해석은 세 단계로 이루어진다. 첫 단계의 해석 대상은 ‘일차적 또는 자연적인 주제(Primary or Natural Subject Matter)’이며 이것의 해석 목적은 ‘전도상학적 기술(pre-iconographical)’이다. 이는 예술적 모티브들이 이루는 세계로 양식사를 통해 보완되는 단계이다. 이 단계는 사실의미와 표현의미로 나누어지며 전자는 특정한 시각 형태를 인식하는 단계이며 후자는 사실의미를 통해 생겨나는 심리적 반응을 통해 의미를 전달하는 단계로 ‘감정이입’이 일어나는 단계이다. 도상해석학의 두 번째 단계의 대상은 그림, 역사 그리고 알레고리를 형성하는 ‘이차적 또는 관습적인 주제(Secondary or Conventional Subject Matter)’이며 이 단계의 목적은 ‘도상학적 분석’이다. 이는 문헌 기록에 대한 지식을 바탕으로 이뤄지며 유형사를 통해 보완된다. 세 번째 단계에 대해 E. Panofsky는 *Studies in Iconology*(1939)를 통해 ‘본래적 의미 또는 의미 내용(Intrinsic Meaning or Content)’으로 상정한다<sup>7)</sup>. 이 단계를 통해서는 E. Cassirer(1874-1945)가 말하는 ‘상징’적 의미를 해석하며 이는 예술가의 내적 ‘예술의지’를 밝혀내는 것으로 이는 깊은 의미에서의 도상학의 연구 목표이다.

현대 예술 작품에 대한 연구 방법으로서 E. Panofsky 도상해석학은 커다란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

으며 확고한 학술적 토대를 기반으로 수많은 학파와 사조 가운데에서 선두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E. Panofsky 도상해석학의 경우 여러 학자들이 지적하고 있듯이 한계점이 존재한다. E. Panofsky의 도상해석학은 첫째, 단계마다 객관적인 요소와 주관적인 요소가 혼재해 있다는 것과 각 단계별로 나뉘어서 도상해석에 적용하는 데에는 무리가 따른다는 것 둘째, 해석의 단계에서 객관적인 보완책이 주관적으로 흐를 수 있는 해석의 폭력을 항상 경계해야 한다는 것 셋째, 예술가 자신이 의식하지 못한 채 깔려있는 본질적 의미가 있다는 점, 그리고 예술 작품 속 이미지인 도상을 표현하는 데에서 수단으로써 작용하는 언어의 자의성 등이 문제점으로 제시되고 있다<sup>8)</sup>. 이처럼 20세기 이후 현대 미술에서의 작품 속 도상의 의미는 E. Panofsky의 고전적인 도상해석학적 방법으로는 분석의 한계가 따름을 알 수 있다.

### 3. 도상을 보는 새로운 도상해석학적 관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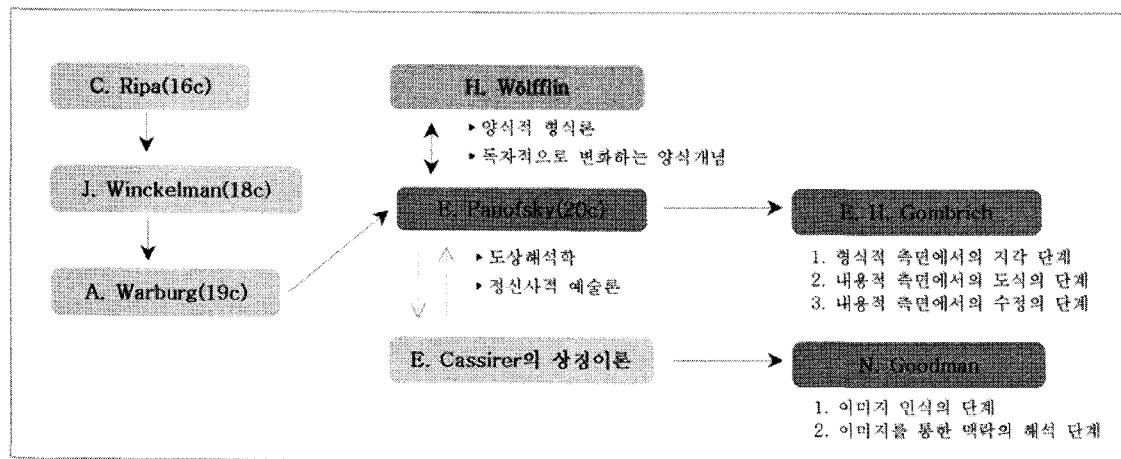
20세기 이후 현대 미술에 이르러 작품의 도상은 점차 해체되고 작가의 개인적이고 주관적인 표현이 강조됨에 따라 해석 방식에도 보다 정밀한 보완을 필요로 한다. 현대미술은 중세 시대의 종교화와는 달리 도상에 대한 이야기나 알레고리가 해체됨에 따라 작가 개인 심리에 관한 자료와 의도파악이 새롭게 요구된다. E. Panofsky의 도상해석학은 작품의 문화사적 의미 해석에 구체적이고 적절한 방식을 제공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로 분석 대상이 되는 작품이 구상적 도상이어야 하고 그 도상의 테마나 개념에 대한 문헌자료와 구전되는 이야기에 정통해야만 해석이 가능하다는 단점을 가진다. 또한 20세기 이후 미술에서 재현은 붕괴되었으며 그 어떤 예술가도 그가 보는 대로 그린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와 같은 관점에 대해서는 E. H. Gombrich(1909-2001)가 선두적 입장을 취하고 있는데 그는 E. Panofsky 이론의 한계점을 언급하고 있으며 언어적 기호와 회화적 기호의 차이, 자연과 인습의 대립에 대해 논하고 있다. 또한 N. Goodman(1906-1998)은 E. Panofsky가 도상해석학 이론을 적용했던 분야에 대한 한계점을 지적한다. N. Goodman은 단순히 알

레고리가 존재하는 회화의 한계를 벗어나 음악, 춤, 건축, 각본, 지도, 다이어그램, 모형에 이르기까지 서로 다른 예술과 상징체계의 영역을 아우르는 이론을 제시하고 있다. E. Panofsky의 이론을 계승하면서 20세기의 미술의 특성을 고려하여 주어진 알레고리 안에서의 해석을 벗어나 상대주의적인 해석을 가능하게 한 E. H. Gombrich와 20세기 이후의 예술 분야의 다양성과 장르의 특성을 고려하여 해석 범위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도상학의 적용 범위를 확장시킨 N. Goodman<sup>9)</sup>의 이론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E. H. Gombrich<sup>10)</sup>는 모사 이론과 극단적 관습주의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했으며 예술 작품의 도상은 예술가의 도식(schema)과 수정의 과정에 의한 코드화 과정<sup>11)</sup>과 이에 대한 관람자 해석의 상호 소통의 과정을 요구하는 ‘암호문(cryptograms)’이라는 점에 주목하였다. 여기에서 언급되고 있는 ‘암호문’은 예술이 전달하는 어떤 신호 체계로 이는 예술을 통해 소통되고 있는 일종의 예술 언어인 것이다. E. H. Gombrich는 회화적 재현이란 관조자가 보는 것을 단순히 복사하는 것이 아니라 양식화된 도식이 관계하는 복잡한 과정이며, 도식은 가치적인 외관에 대한 ‘짝짓기(matching)’가 일어날 수 있기 전의 그 자신만의 언어로 조작되어야만 하는 인습적(conventional) 형태의 어휘라고 주장한다<sup>12)</sup>. 예술가 자신의 지각 체계에 의해 선택된 도식들은 선택하고 배제하는 수정에 과정을 거쳐 하나의 결과물이 만들어지며 이러한 이유로 같은 대상을 재현하는데 있어 각기 다른 결과물을 만들어 내는 것이다. E. H. Gombrich는 도식과 수정의 과정 반복에 의한 회화의 제작과 독해에 대해 논의하면서 회화적 환영이란 예술가와 관람자의 협력을 통한 문화적 관습과 지각 경험의 상호 작용을 통한 창출임을 주장한다.

한편, N. Goodman은 모든 상징적 형태를, 심지어는 모든 지각의 행위까지 문화적으로 상대적인 구성 또는 해석으로 환원시킨다. 그에 의하면 그림은 글과 마찬가지로, 자의적 코드(arbitrary code)로 읽혀야 한다는 것이다<sup>13)</sup>. 이미지가 재현하는 것이 무엇인지 를 아는 일은 해당 문화가 사용해 온 관례를 읽어내는 방법을 학습하는 문제인 것이다. 만일 관례들을



&lt;그림 1&gt; 도상학의 계보

알지 못한다면, 우리가 묘사대상에 대해 얼마나 많이 알고 있느냐도 중요치 않게 될 것이다. 문화가 적용해 온 회화적인 재현언어에 숙달될 때에만 그림들을 정확히 읽어낼 수 있다<sup>14)</sup>는 것이 N. Goodman의 주장이다.

시각 이미지를 비롯한 음악의 악보, 연극의 대본, 무용, 전축, 지도와 그림 같은 다양한 종류의 비언어적 기호 체계의 기저에 존재하는 코드와 메커니즘을 탐구하면서, 언어 모델로부터 분석을 시작하지 않은 N. Goodman의 이론은 언어와 이미지의 관계를 설명하는 데 있어 전환의 계기를 마련해 주었다. 결국 N. Goodman에 의하면 기호는 그 사용과 관습 또는 기능에 의해 결정되고 그 차이는 관습의 종류 차이일 뿐이다. W. J. T. Mitchell(1942-)은 이러한 N. Goodman의 기호이론이 언어와 이미지의 관계를 설명하는 데 있어서 새로운 방향제시를 했다고 평가한다<sup>15)</sup>. Mitchell이 강조하고 있는 것은 예술 작품 속의 이미지의 개념이다. 그는 N. Goodman의 관점을 빌어 하나의 기호로서 영상(picture)과 언어의 역할이 다르지 않음을 인정하나 그 영상과 말 속에 공통적으로 존재하는 이미지라는 개념에 집중하고 있다. 즉 Mitchell의 관점에서의 이미지는 N. Goodman이 언급하고 있는 이미지와는 다른 개념으로 즉 이데올로기의 또 다른 표명으로 보고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이 2장을 통해 고찰한 도상학의 역사와 관계를 <그

림 1>을 통해 제시하였다.

### III. 복식의 도상 해석을 위한 패러다임

#### 1. E. Panofsky, E. H. Gombrich, N. Goodman 이론을 통한 도상해석의 새로운 관점

E. Panofsky의 이론은 고전적인 알레고리를 바탕으로 해석을 하고 있어 20세기 이후 예술 작품에 적용하기에는 한계가 있으며 이를 E. H. Gombrich와 N. Goodman의 이론을 통해 보완하고자 한다. <그림 2>는 이 세 학자의 이론의 단계에 따른 내용과 각 이론 간의 관계, 그리고 각 단계별 보완점을 제시하고 있다.

E. Panofsky 도상해석학 이론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20세기 이후 예술 작품에 적용시키고 있는 E. H. Gombrich의 이론에서는, ‘형식적 측면에서의 지각 단계’를 통해 대상의 조형적 특성과 화가의 화법 등을 일차적으로 인식하고 이를 객관적으로 기술하고 있으며 이는 도상해석의 일차적 단계이다. 이를 토대로 그림 속 대상의 의미를 문헌을 바탕으로 해석하는 것이 이차적 단계인 ‘내용적 측면에서의 도식의 단계’에 해당하며 이 단계에서는 대상에 대한 코드화와 해독의 과정을 거친다. 그의 이론의 마지막 단계인 ‘내용적 측면에서의 수정의 단계’는 전 단계인 ‘내용

적 측면에서의 도식의 단계'와의 상호보완과 반복의 과정을 통해 도식의 수정을 가하고 의미를 분절화 시킨다. 이 과정을 통해 대상에 대한 의미의 전이가 일어나고 새로운 도식이 고안된다. 그의 이론에서 주목할 부분은 내용적 측면에서의 '도식과 수정'의 과정으로 이를 통해 예술가와 관람자 간의 상호작용이 가능하며 이는 도상해석에서의 유동적이고 상대적인 시각을 가능하게 한다.

E. H. Gombrich의 도식과 수정의 반복되는 과정은 E. Panofsky의 해석과 같이 한 방향으로 흐르는 단계적 해석이 아닌 유동적인 해석을 가능하게 하여 알레고리화된 정형적인 해석에서 벗어난 다양한 해석을 가능하게 하며 이는 20세기 이후 예술 작품의 다양성과 장르의 해체 등을 고려할 때 이에 적합한 해석의 틀을 적용하고 있다고 사료된다. 이 도식의 인식과 수정의 과정은 상호보완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이는 문화적 관습과 지각 경험의 상호 작용을 바탕으로 한다. 이 과정을 통해 의미의 분절화가 일어나며 대상의 의미가 전이되기도 한다. 이러한 반복되는 상호 과정을 통해 E. H. Gombrich의 '환영 이론'이 등장하게 되고 이는 창작자인 예술가와 이를 수용하는 관람자 사이의 교류를 가능하게 만든다.

더불어 도상해석의 적용 분야에서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N. Goodman의 이론을 적용하여 보완하고자 한다. N. Goodman은 '이미지 인식의 단계'와 '이미지를 통한 맥락의 해석 단계'를 통해 도상의 인식과 해석을 시도하고 있다. '이미지 인식의 단계'에서는 이미지를 일종의 기호 체계로 파악하며 자의적인 코드에 의해 인식하고 이를 바탕으로 대상을 상대주의적 관점을 통해 분석한다. N. Goodman은 '이미지를 통한 맥락의 해석 단계'에서 이미지 해석에 있어서의 상대주의적 관점에 의한 '상징적 체계의 농밀함'을 주장하고 있는데 이는 예술 작품을 해석함에 있어 그 작품에 영향을 주는 사회적·문화적 배경의 중요성과 그 상황의 중요성을 의미한다. 이는 미적 경험 속 정서를 통해 대상의 상징적 의미를 읽어내는 단계이다.

N. Goodman의 관점을 적용함으로써 회화뿐만 아니라 다양한 분야의 예술 작품에 표현된 이미지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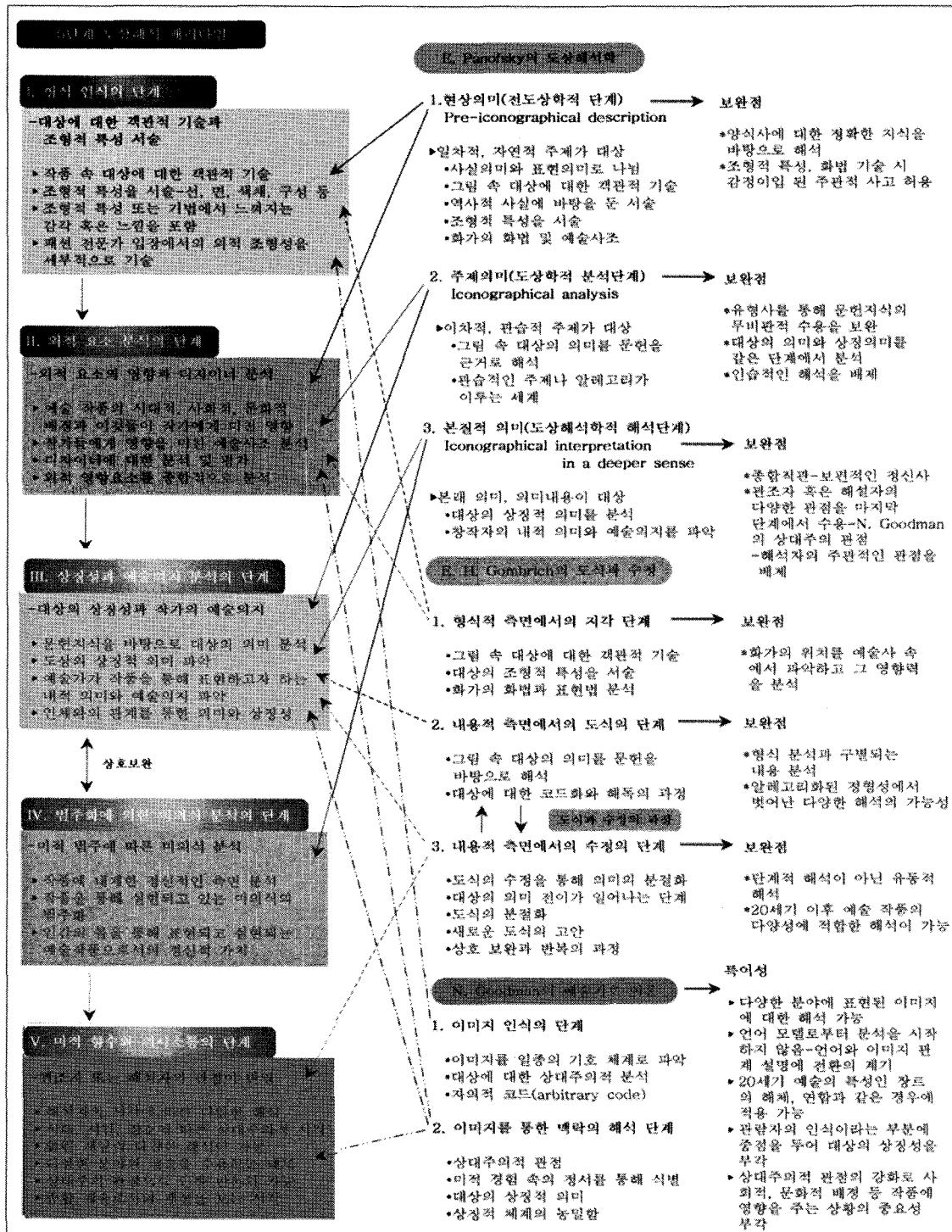
해석이 가능하며 더 나아가 20세기 예술의 특성을 고려할 때 좀 더 폭넓은 시야를 제공해 줄 수 있으리라 생각된다. N. Goodman은 상대주의적 관점으로 대상을 분석하고 있으며 이는 작품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사회적·문화적 배경의 중요성을 부각시킬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준다. 예술 작품은 그 작품이 형성된 시대와 사회 그리고 문화에 영향을 받는 상징적인 산물로서 이와 같은 N. Goodman의 상대주의적 관점은 하나의 예술 작품이 형성되는 데에 있어서 그 작품에 영향을 주고 있는 다양한 상황들의 중요성을 부각시키고 있다.

## 2. 패션 분석을 위한 도상해석의 5단계

E. Panofsky의 도상해석학 이론을 바탕으로 E. H. Gombrich의 이론과 N. Goodman의 관점을 통해 보완한 새로운 도상해석의 패러다임을 구성하여 패션 작품의 도상 해석을 위한 틀로서 적용시켜 고찰해 보고자 한다. 패션 작품 분석을 위한 도상해석의 틀은 5단계로 구성되어 있는데 I.형식 인식의 단계(Recognition of Iconological Form), II.외적 요소 분석의 단계(Analysis of External Element), III.상징성과 예술의지 분석의 단계(Analysis of Symbolic Meanings and Kunstwollen), IV.법주화에 의한 미의식 분석의 단계(Analysis of Aesthetic Consciousness by Categorization), 그리고 V.미적 향수와 의사소통의 단계(Aesthetic Enjoyment and Communication with a Viewer)로 이와 같은 체계적인 단계별 분석을 통해 Vivienne Westwood 작품 속 복식의 도상과 그 의미를 고찰하고자 한다. 이는 앞서 고찰한 E. Panofsky, E. H. Gombrich 그리고 N. Goodman의 이론을 바탕으로 구성한 것으로 <그림 2>를 통해 상관관계를 제시하였다.

1단계 '형식 인식의 단계'는 각 대상에 대한 객관적인 기술과 조형적 특성을 서술하는 단계이다. 외적인 조형적 특성 또는 기법 서술 시 느껴지는 감각 혹은 느낌을 포함하며 이 과정에서 주관적인 의견이 포함될 수 있다.

2단계는 '외적 요소 분석의 단계'로 작품 창작에 영향을 미치는 외적 영향인자들에 대한 고찰의 단계



이다. 시대적·사회적·문화적 배경과 더불어 디자이너에게 영향을 미친 예술가 또는 예술 사조를 고찰하는 단계로 외적 영향 요소를 종합적으로 분석하는 단계이다. 이 단계는 E. Panofsky의 이론에서 현상의 미와 주제의미를 언급하는 단계이며 E. H. Gombrich의 이론에서는 형식적 지각 단계에 해당한다. 반면 N. Goodman 이론에서는 이미지 인식의 단계를 넘어서 이미지를 통한 맥락의 해석 단계에 해당한다.

3단계는 ‘상징성과 예술의지 분석의 단계’로 작품 속 각 대상의 상징성과 작가의 예술의지를 분석하는 단계이다. 이 단계에서는 문헌 지식을 바탕으로 각 대상의 상징적 의미를 분석한다. 이 단계는 E. Panofsky 이론에서의 주제의미와 본질적 의미를 밝히는 단계이며 E. H. Gombrich 이론에서는 내용적 측면에서의 ‘도식과 수정의 과정’을 통한 상호작용이 일어나는 단계이다. N. Goodman의 관점에서는 이미지를 통한 맥락의 해석을 진행하는 단계이기도 하다.

4단계 ‘범주화에 의한 미의식 분석의 단계’는 작품에 내재한 미의식을 범주화하는 단계이다. 이 단계는 기존의 객관적으로 범주화되어 있는 미적 범주의 카테고리 안에서 미의식을 해석하는 단계이다. 이는 기존의 E. Panofsky 도상해석의 3단계 중 예술 작품의 본질적 의미를 통해 그 안에 내재된 미적 가치를 읽어내는 단계로 이는 관조자의 미적 향수를 미적 범주화의 틀을 통해 객관화시켜 고찰하는 단계이다.

마지막 5단계는 ‘미적 향수와 의사소통의 단계’로 다양한 해석자 혹은 관조자들의 관점이 반영되는 단계이다. 4단계가 객관화된 틀 안에서의 미의식 고찰의 단계라면 마지막 단계는 전 단계를 수용한 포괄적이며 다양한 시각의 분석이 가능한 단계인 것이다. 이는 한 예술 작품을 바라보고 이해하고 해석하는 작업이 관조자에 미적 태도를 비롯해 작품을 향유하는 시대, 시간, 그리고 장소에 따라 다른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상대주의적 사고에 기인하는 것이며 이는 E. H. Gombrich와 N. Goodman의 관점을 반영한 해석 단계이다.

## IV. Vivienne Westwood 패션 작품에 대한 도상학적 해석

### 1. 형식 인식의 단계

#### 1) 여성 인체의 왜곡과 강조

Mini-Crini 컬렉션(1985 S/S)에서의 tweed crinoline은 19세기의 crinoline과 같은 형태를 가지고 있으나 현대 미니스커트와 유머러스하게 결합하고 있다. Harris Tweed 컬렉션(1987 A/W)에서 등장한 Mini-Crini는 전 시즌의 겨울 버전으로 붉은 색의 배라시아(barathea)<sup>16)</sup> 원단으로 되어있다(그림 3)<sup>17)</sup>. Mini-Crini는 또 다른 변형의 형태로 등장하게 되는데 Voyage to Cythera(1989 A/W)에서 가면을 쓴 광대인 ‘Harlequin and Columbine’의 극장용 무대의상<sup>18)</sup>을 상기시키는 착장을 통해서이다. 짧은 crinoline 구조의 Mini-Crini는 화려한 삼각형 패턴 원단에 레드, 블루, 블랙의 강렬 색상 대비를 주고 있으며 스커트의 밑단 부분에 러플 장식을 달아 화려함을 더하고 있다.

Westwood의 컬렉션을 통해 지속적으로 등장하고 있는 corset, bum-pad, bustle은 여성의 인체를 강조하고 왜곡시키고 있다. Harris Tweed 컬렉션에는 18세기 corset에 기초한 아이템인 ‘Stature of Liberty corset’을 선보이고 있으며, Pagan I(1988 S/S)의 코르셋 경우는 가슴 깊이 파인 카울 형태의 네크라인이 그리스 복식의 드레이퍼리 기법을 연상시킨다(그림 4)<sup>19)</sup>. Portrait 컬렉션(1990 A/W)에서도 F. Boucher(1703-1770)의 그림이 프린트된 18세기 스타일을 모델로 한 corset을 제시하고 있다.

Vive la Cocotte 컬렉션(1995 A/W)을 통해 제시되고 있는 인체 과장은 패드가 들어간 가슴과 bustle cushion, metal cage를 통해 표현되고 있다. 가슴과 힙 부분은 너무나 과장되어 우스꽝스러워 보이기까지 하는 것이 특징이다(그림 5)<sup>20)</sup>. On Liberty 컬렉션(1994 A/W)의 큰 부분을 차지하는 테일러링 작품들 또한 새로운 S-shape 실루엣으로 표현되고 있으며 쿠션으로 된 bum-pad를 사용하여 허리를 더 가늘게 보이는 효과를 주었다. Café Society(1994 S/S)

의 1890년대에서 1910년까지의 여성들의 드레스 스타일의 과장된 형태의 제시는 과거 crinoline에 대한 또 다른 시각의 제안이라고 할 수 있다.

## 2) 다양한 구성과 재단의 테일러드 재킷

Westwood의 작품에서 커다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아이템은 테일러드 재킷이다. Harris Tweed 컬렉션에 Savile jacket은 Savile Row<sup>21)</sup>의 테일러링 전통 기법을 모사하고 있다. Voyage to Cythera에서는 Harris Tweed 원단의 'Savile' 재킷을, Portrait에서는 Breenish Tweed의 수트를 선보이고 있다. On Liberty 컬렉션의 Power jacket의 경우 아워 글라스 실루엣의 더블 브레스트 재킷으로 어깨와 힙 부분에 패딩을 넣어 실루엣을 강조하고 있다(그림 6)<sup>22)</sup>. Vive la Cocotte 컬렉션 역시 Westwood의 언어의 일부가 되어버린 테일러링 디테일을 포함하고 있다.

Grand Hotel 컬렉션(1993 S/S)에서 Christian Dior의 여성 인체형을 강조하기 위해 사용된 패딩과 전통적인 테일러링의 재구축 방법은 인체의 형에 대한 Westwood의 관심의 반향을 반영하고 있다. 그녀는 테일러드 재킷 시리즈에서 Dior의 실루엣을 모방했고 첫 번째 작품을 '1950 jacket' 또는 'Bettina jacket'라고 불렀다(그림 7)<sup>23)</sup>. Anglomania<sup>24)</sup> 컬렉션(1993 A/W)을 통해서는 전 시즌 컬렉션에서 선보인 Bettina jacket을 tartan check 원단을 사용해 재등장시키고 있다(그림 8)<sup>25)</sup>. Vive la Cocotte 컬렉션의 Metropolitan 재킷과 스커트의 착장은 Westwood가 Metropolitan Museum of Art에 있는 Christian Dior의 작품에 대한 연구를 통해 얻어진 결과물이며 이 역시 Westwood가 고안한 cage bustle에 의해 과장된 실루엣을 보여주고 있다(그림 9)<sup>26)</sup>.

## 3) 영국 전통 소재 및 디테일

Vivienne Westwood는 영국의 전통적인 원단의 사용과 새로운 개발에 노력을 기울인 디자이너로 Tartan, Harris Tweed, Prince of Wales Check와 같은 소재의 사용은 각각의 컬렉션을 통해 새롭게 제시되고 있다. Anglomania 컬렉션에서는 다양한 tartan check를 통해 새로운 느낌을 제시하고 있으며 Harris

Tweed 원단은 Westwood 디자인을 통해 지속적으로 등장하고 있는데 Time Machine 컬렉션(1988 A/W)에서 Miss Marple 수트, On Liberty 컬렉션의 Power jacket 등이 그 예이다. Pagan I 컬렉션에서 사용된 원단은 옅은 회색의 Prince of Wales Check로 빛의 위치에 따라 오묘한 색상의 변화를 나타내고 있다.

On Liberty 컬렉션에서는 Liberty & Co. of Regent Street와의 공동 작업을 통해 양털에 한 프린트, needlecord, 그리고 퀼트한 조젯을 선보였다. Westwood는 Cut, Slash & Pull 컬렉션(1991 S/S)의 셔츠 슬래쉬를 위한 정교한 기계를 고안해 냈으며 영국의 자수인 broderie anglaise를 사용하여 장식했다. Portrait 컬렉션에서는 Wallace 컬렉션으로부터 로코코 디자인을 사용하고 있는데 이는 가구 디자이너인 André-Charles Boulle에 의해 제작된 18세기 거울 뒷면에 새겨진 놋쇠 상감세공 패턴으로부터 나왔다.

## 2. 외적 요소 분석의 단계

### 1) 영국의 역사, 예술과 문화

Westwood는 영국의 전통과 현재 사이에서 그녀만의 어휘를 선택하고 이를 결합시켜 새롭게 자신만의 작품 세계를 탄생시키고 있다. Mini-Crini 컬렉션은 Petrushka 발레 공연으로부터의 영감, 그리고 19세기 crinoline과 현재 미니스커트의 결합의 결과이다. 또한 Portrait 컬렉션을 통해서 과거 복식의 수용을 더욱 더 발전시키고 있다. 이 컬렉션에서는 F. Boucher의 'Shepherd Watching a Sleeping Shepherdess'의 사진 프린트를 솔과 corset에 사용했고 붉은 색의 barathea 원단 재킷은 18세기 초상화인 'The Boy with a bat: Walter Hawkesworth Fawkes'에서 보여지는 복식을 모방하고 있으며 이는 1988년 Stephen Frears(1941- )의 영화인 'Dangerous Liaison'의 이름을 따 'DL' 재킷이라고 불렀다(그림 10)<sup>27)</sup>. Les Femmes 컬렉션(1996 S/S)의 Watteau 이브닝 드레스는 Watteau(1684-1721)의 그림과 그 그림 속 복식들의 영향을 보여주는 예이며, Voyage to Cythera 컬렉션 또한 'Watteau'의 그림에서 영감을 받았다.



〈그림 3〉 Vivienne Westwood, 1987 A/W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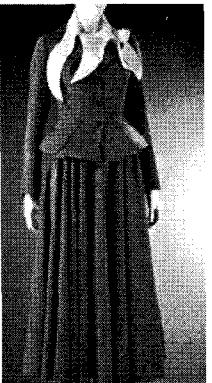
〈그림 4〉 Vivienne Westwood, 1988 S/S



〈그림 5〉 Vivienne Westwood, 1995 A/W



〈그림 6〉 Vivienne Westwood, 1994 A/W



〈그림 7〉 Vivienne Westwood, 1993 S/S

Five Centuries Ago 컬렉션(1997 A/W)은 Elizabethan 시대와 Tudor 왕가 초상화에서 영감을 얻었다.

Café Society는 화가인 Toulouse Lautrec(1864-1901)과 영국의 패션 디자이너인 C. F. Worth(1825-1895)의 작품으로부터 영감을 얻었다. Tied to the Mast 컬렉션(1998 S/S)에서는 Théodore Géricault(1791-1824)의 ‘The Raft of the Medusa’의 이미지를 사용하고 있으며 영국의 디자이너인 John Redfern의 테일러드 착장을 인용하고 있다. La Belle Hélène 컬렉션(1999 S/S)은 Rubens(1577-1640)의 아내인 Hélène Fourment의 초상화에서 영감을 받았다.

## 2) Christian Dior의 재단법 및 역사 속 복식의 구조

Westwood는 과거의 그림 속 복식의 테일러링 기법에 대한 연구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으며 자신의 작품을 통해 재구성을 통한 재현을 실현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Dior의 테일러링 기법과 재단법의 연구의 결과를 자신의 작품을 통해 표현해내고 있다. Grand Hotel 컬렉션은 그녀가 존경하던 Christian Dior(1905-1957)에 대한 경외심을 표현한 컬렉션으로 패션 디자이너들에 의한 역사와 그들이 형성한 문화에 대한 향수를 전하고자 했다. 그녀는 Dior의 테일러링을 주의 깊게 연구했으며 특히 전통적인 남성의 재단 방식을 여성에게 적용시킨 방식에 관심을 가졌다.

다. 그녀는 Dior의 재단법에 대해 남성적인 착장을 훌륭하게 여성의 인체에 적용시키고 있다고 평가하면서 테일러드 재킷 시리즈에서 Dior의 실루엣을 모방했다. 첫 번째 작품을 ‘1950 jacket’ 또는 ‘Bettina jacket’이라고 명명했으며 이후의 다른 컬렉션을 통해 다른 버전으로 재등장하곤 했다<sup>28)</sup>. Vive la Cocotte 컬렉션에서도 Dior의 수트에서 영감을 받은 Metropolitan 재킷과 스커트를 선보이고 있다.

Westwood의 작품은 크게 역사적 컷팅에 의한 체계적인 탐험에 의해 영향을 받고 있다. 그녀의 작품은 영국 테일러링에 근원을 두고 있으며 역사적 복식 구조에 대한 그녀의 주의 깊은 연구는 Victoria and Albert Museum의 작품들, Boucher(1703-1770)와 Watteau의 그림들을 통해 얻어졌다. Westwood는 ‘과거의 세대에 존중받지 않을 시기는 없으며 나는 과거의 모방을 믿는 사람이다’라고 언급하고 있으며 그녀만의 독특한 실용주의와 독창주의의 혼합을 보여주고 있다<sup>29)</sup>.

## 3. 상징성과 예술의지 분석의 단계

### 1) 여성의 자유와 권리의 상징

Vivienne Westwood는 여성의 권리와 자유의 상징을 크게 여성의 성적 특성을 강하게 어필하는 방식과 성적 표현에서의 부조리를 표현하는 방식을 통해 제시하고 있는데 이는 컬렉션 속 다양한 복식의



〈그림 8〉 Vivienne Westwood, 1993 A/W

〈그림 9〉 Vivienne Westwood, 1995 A/W

〈그림 10〉 Vivienne Westwood, 1990 A/W

〈그림 11〉 Vivienne Westwood, 1992 S/S

〈그림 12〉 Vivienne Westwood, 1994 A/W

#### 아이템과 형태를 통해 드러난다.

Westwood 작품 활동에서 방향 전환의 지표가 된 Mini-Crini는 여성의 인체미에 대한 변화하고 있는 패션에서의 정의를 제시하고 있으며 이는 1960년대의 미니스커트와 1850년대 crinoline의 문화적 hybrid<sup>30)</sup>로 crinoline이 여성 복식에서의 구속과 거추장스러움을 의미한다면 Mini-Crini는 미니스커트와 연계된 자유를 내포하고 있다. 이 둘의 혼성을 통해 여성의 몸을 드러냄과 감춤의 미학으로 융합하고자 하는 여성의 욕망을 표현한 Westwood의 의도가 표출되고 있다<sup>31)</sup>.

Salon 컬렉션(1992 S/S)을 통해서는 18세기 사회적으로 영향력이 있는 여성들을 상징하는 살롱이라는 장소를 이미지화함으로써 여성들의 권위를 드러내고자 했으며 더불어 Westwood는 디자이너로서의 자신의 권위를 확인하고자 했다(그림 11)<sup>32)</sup>. Vive la Cocotte 컬렉션에는 매우 과장되고 왜곡된 여성의 인체를 표현하고 있는 옷들이 등장한다. Westwood는 이러한 모습과 현상들을 새로운 여성주의의 권력으로 정의내리고 있다. 컬렉션 속의 옷들은 매우 모순적인 모습을 가지고 있었지만 매우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으며 또한 매우 공격적인 느낌을 전달하고 있다. On Liberty 컬렉션에서도 역시 여성들을 바라보는 시각의 변화를 시도하고 있다. 이 컬렉션을 통해 현대 사회 속에서 획일화되어가고 있는 여성들에 대한 판단 기준과 편견에 대한 비판을 인체의 왜곡과 강조를 통해 풍자하고 있다(그림 12)<sup>33)</sup>.

또한 Westwood는 여성의 복식에 남성 복식의 요소를 가져와 풍자하여 성적 부조리를 드러냄으로써 여성의 성을 바라보고 판단하는 사고의 변화를 시도하고 있다. Voyage to Cythera에서 Westwood는 과거 남성의 착장과 그 이미지를 현대의 이미지로 풍자하여 재해석하는 그녀만의 유머를 보여주고 있다. ‘Principal boy’ 착장은 마치 남성의 옷을 입고 있는 듯한 착각을 불러일으키며 특히 남성의 성기 부분을 무화과 나뭇잎으로 가리는 타이즈를 통한 풍자는 그녀만의 해학적인 시각과 성 정체성에 대한 신랄한 비판적 시각을 던지고 있다(그림 13)<sup>34)</sup>.

#### 2) 영국적 전통에 대한 존경

Westwood는 영국을 상징하는 다양한 요소들을 자신의 컬렉션을 위해 사용했으며 전통적인 것을 전통적이지 않은 어떤 것으로 만드는데 사용했다. Anglo-mania 컬렉션은 단어적인 의미에서부터 영국에 대한 프랑스의 문화적 승배를 의미한다. 1760년대까지 Anglomania는 패션과 연계되었고 특히 복식에 있어서는 검소함, 꾸밈없음, 실용성, 그리고 격식을 갖추지 않음으로 특정 지위였다<sup>35)</sup>. 이 컬렉션은 영국다움에 대한 우월감과 승배의 사상을 드러내는 것으로 Westwood가 얼마나 그녀의 조국인 영국에 대한 사랑을 가지고 있는가를 보여주는 예라고 할 수 있다.

Five Centuries Ago 컬렉션은 영국 Tudor 왕가의 초상화에서 영감을 얻었다. 남성의 정액이 담긴 다섯



〈그림 13〉 Vivienne Westwood, 1989 A/W



〈그림 14〉 Vivienne Westwood, 1997 A/W



〈그림 15〉 Vivienne Westwood, 1990 A/W



〈그림 16〉 Vivienne Westwood, 1991 A/W



〈그림 17〉 Vivienne Westwood, 1994 S/S

개의 유리병이 진주와 함께 장식되어 있는 'Incubus Necklace'로 불리는 목걸이에는 'Vice and Virtue'라고 새겨져 있다<sup>36)</sup>. 이는 처녀로서 평생을 살면서 영국을 통치해야했던 여왕에 대한 Westwood만의 표현 방식으로 이를 통한 그녀의 의도는 '옷'이란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모두를 자극하는 것이고 좌장자로 하여금 개인적이고 대중적인 즐거움을 가져올 뿐만 아니라 성장(盛裝)을 함으로써 자아에 대한 인식을 증가시킨다는 자신감을 스며들게 하는데 있다(그림 14)<sup>37)</sup>.

### 3) 역사와 문화의 결합을 통한 재해석

Westwood 디자인의 많은 부분은 Wallace 컬렉션, Boucher, Ingres(1780-1867), Tissot(1836-1902)의 그림을 corset, crinoline과 bustle을 통해 부활시켰다. 이것들은 무익한 삶의 여성적 상징으로서, 복식의 역사에서 영원히 사라져 버릴 것이며 단지 전시를 통해서만 보여질 것으로 예상되었으나 Westwood를 통해 다시 등장하고 있다. 과거의 부정적인 유산에 대한 대중들의 태도는 Westwood에 의해 변화하였으며 이는 그녀의 타고난 역사 인식 능력과 재현 감각에 의한 것이었다<sup>38)</sup>.

Portrait 컬렉션에 대한 비평가들과 대중들의 갈채는 그녀에게 있어 변화의 시점이 되었고(그림 15)<sup>39)</sup> Dressing Up 컬렉션(1991 A/W)은 Westwood의 절충주의(eclecticism)를 반영하며 이전 컬렉션을 통해

해왔던 주제를 정교화하고 있다(그림 16)<sup>40)</sup>. Janet Arnold<sup>41)</sup>는 Westwood의 옷과 Van Dyck(1599-1641)의 'swagger' 초상화 그리고 다른 17세기 화가의 작품을 비교했다. 특히 Café Society 컬렉션의 화려한 엘로우 색상의 실크 드레스에 대해 Arnold는 Westwood는 과거 그림 속의 이미지를 통해 영웅적인 이미지를 창조해내고 있으며 이를 통해 여성의 인체를 우아하고 기품 있게 표현해내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다. Westwood는 디자이너에게 있어서 역사, 문화에 대한 자신만의 해석 능력의 중요성을 보여주고 있다(그림 17)<sup>42)</sup>.

### 4. 범주화에 의한 미의식 분석의 단계

#### 1) 영국 역사와 문화에 대한 숭고적 경외심

Westwood는 역사와 문화에 대한 연구에 근거한 인식을 바탕으로 그녀만의 방식을 통해 새롭게 해석해내는 작업을 '옷'이라는 대상을 통해 실현하고 있으며 문화와 역사를 바라보고 그것들을 함께 혼합하여 그녀만의 패션을 만들어내고 있다<sup>43)</sup>. Westwood는 과거의 역사와 문화를 바탕으로 새로운 현재의 문화를 창조해가는 선두자적인 역할의 예술가이다.

Westwood 디자인의 가장 특징적인 면모는 역사주의이며 이는 숭고적 경외심의 특성을 드러낸다. 숭고미는 복식의 과장과 확대를 통해 인체의 실질적인 형태와 크기를 왜곡시킴으로써 표현되고 있으며 이는 좌장자의 위엄을 드러내고 지위를 과시하는 역할

을 수행한다. 또한 Westwood는 역사 속 과거의 문화와 예술 속에서 다양한 영감을 얻고 있으며, 특히 영국의 왕조를 상징하는 다양한 요소들을 재현해내고 있다. 이를 통해 그녀는 영국이라는 국가와 이를 통치하던 왕조에 대한 경외감과 존경심을 드러내고 있으며 그녀의 이와 같은 사상은 복식의 과장과 확대라는 방식을 통해 숭고미로 표현되고 있다.

## 2) 귀족적 취향

Westwood 작품 속 우아미는 과거 예술가들의 그림 속 여성의 복식을 모사의 대상으로 삼고 있음에서 드러난다. 특히 로코코 시대의 Watteau의 그림은 우아미를 대표하는 작품으로 Westwood는 Watteau의 그림 속 다양한 요소들을 자신의 디자인 영감으로 사용하고 있다. 그녀의 다수의 컬렉션을 통해 제시되고 있는 역사 속 그림의 영향, 레이스와 리본 장식 등은 우아미를 느끼게 하는 요소로 작용한다. 예술 작품에 표현되는 귀족적인 취향은 인간의 감성과 이성의 조화를 통해 표출되는 것으로 일반적으로는 숭고미(sublime)와 대립되는 개념이나 Westwood는 자신의 작품을 통해 이 둘의 조화를 보여주고 있다. Westwood는 영국의 전통과 역사 그리고 영국 왕실의 귀족적인 취향을 그녀만의 방식으로 표현하고 있다.

그녀의 컬렉션을 통해 지속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영국의 전통적인 소재인 Harris Tweed, Prince of Wales Check, Tartan Check 등은 그녀 작품의 고

급스러움을 증가시키고 품위와 세련됨을 드러내고 있다. 더불어 Christian Dior의 테일러링 기법과 재단법의 모사와 응용은 여성의 우아함을 잘 드러내고 있으며 그녀만의 재해석 능력은 현대 패션 흐름을 주도하는 Vivienne Westwood 작품만의 독특한 고급스러움과 도회적인 아름다움을 드러낸다. Westwood는 역사의 전통성과 영국의 귀족적 취향, 소재의 고급스러움, 그리고 세련된 테일러링 기법을 통해 우아함과 세련됨의 극치를 표현하고 있다(그림 18)<sup>44)</sup>.

## 3) 풍자를 통한 웃음 유발

Westwood는 자신은 전통적인 것에 근거하여 영국 문화를 패러디하는 작업에서 행복을 느끼며 그녀가 패션이라는 분야에서 창작 활동을 하는 이유는 ‘준거(conformity)’라는 것을 파괴하기 위해서<sup>45)</sup>라고 이야기 한다. Westwood는 도발적이고 고정 관념을 벗어난 열정적인 디자이너이다. 여성의 가슴, 힙 그리고 허리의 강조와 과장 그리고 왜곡이 그녀의 작품에서의 핵심이며 그녀는 과거와 현재의 요소들을 무질서하게 섞고 혼합한다. 그녀는 각각의 컬렉션을 통해 그것들의 원래의 문맥적 의미로부터 물려나 이야기 속의 숨은 의미를 만들어낸다. 그녀는 현상의 이야기와의 반대로 복잡한 이야기를 만들어내고 전통적인 이상적 여성미에 대한 도전을 행한다<sup>46)</sup>. 이와 같은 도전은 의외의 놀라움을 유발하고 이를 통해 관조자들에게 웃음과 신선한 충격을 전달하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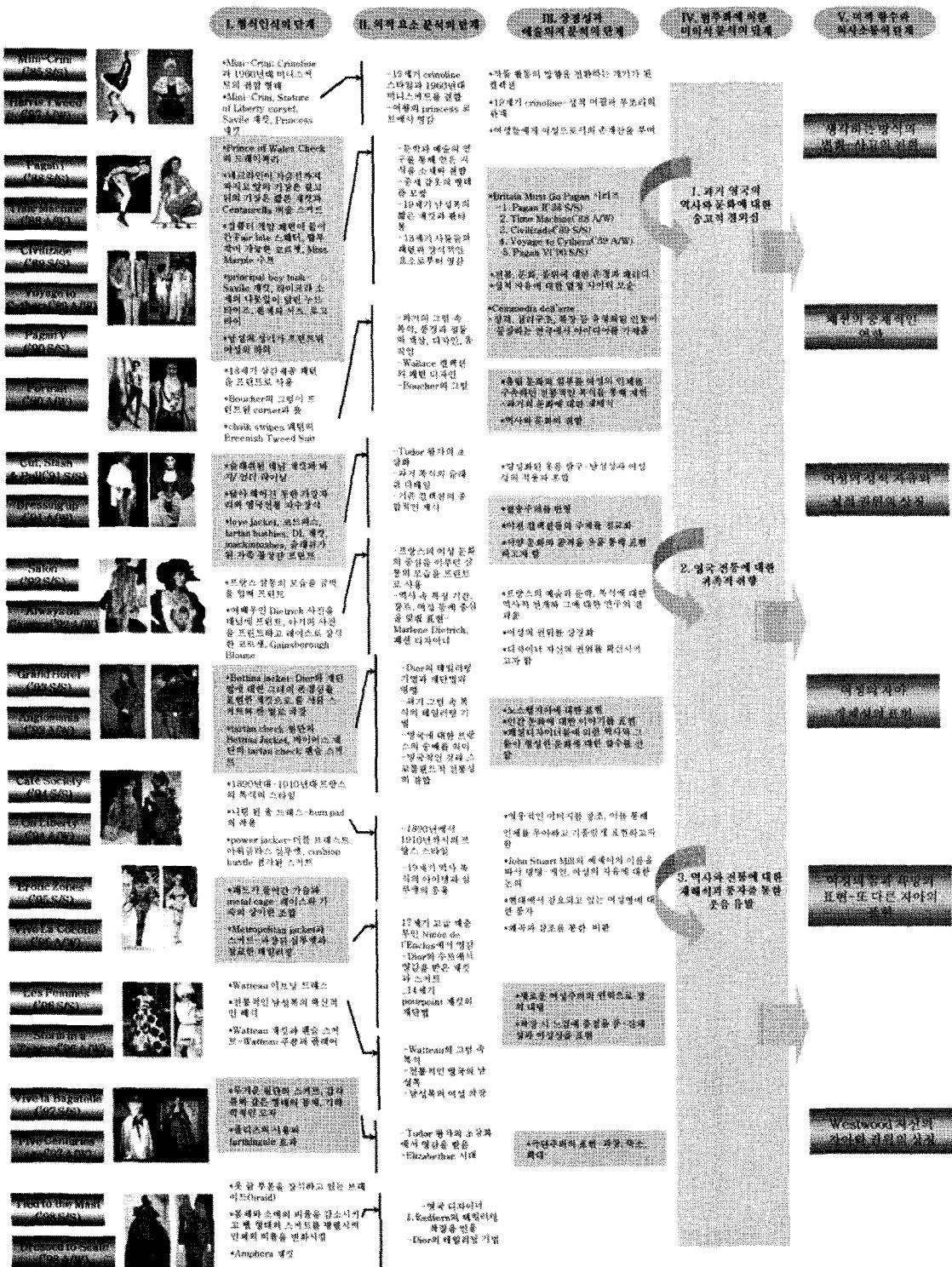


〈그림 18〉 Vivienne Westwood, 1995 A/W



〈그림 19〉 Vivienne Westwood, 1995 A/W

도상해석학 관점에서 고찰한 Vivienne Westwood 패션 작품



〈그림 20〉 Vivienne Westwood 컬렉션 도상해석 단계별 분석(47)

Westwood의 작품은 단순히 과거의 반복이 아닌 현실 속의 문제점을 자신의 작품에 결합시켜 패러디 함으로써 현실을 풍자하고 있다. 풍자를 통해 Westwood는 현실 속의 허식을 비판하고 있는 것이며 이는 관조자들의 웃음을 유발한다. Westwood의 작품을 바라보는 관객은 예기치 못했던 형태와 구성에 놀라움을 드러낸다. 현실성에서 벗어난 웃을 통해 쾌감을 발견하게 되며 더 나아가 현실을 벗어난 자유를 느끼게 된다. 웃에 의해 강조되고 왜곡된 여성의 인체는 은유적으로 현대사회를 비판하고 풍자하고 있다 <그림 19><sup>48)</sup>.

## 5. 미적 향수와 의사소통의 단계

Westwood의 패션은 지속적으로 움직이고 있으며 그녀만의 독특한 디자인은 패션의 세계에 새로운 언어를 만들어내면서 커다란 영향을 미치고 있다. Westwood는 그녀의 작품을 통해 예상을 뛰어넘는, 사고의 전환을 불러일으키는 웃과의 대화를 시도하고 있으며 이는 항상 여성의 인체와의 관계를 통해서이다. Westwood는 단지 입는 옷이 아닌 역사와 문화를 계승하는 상징적 옷을 만들어냄으로써 과거와 현재를 연결하고, 예술과 상업을 연결하는 패션에서의 중재적인 자리 역할을 하고 있다. 과거 역사 속에서 여성의 인체를 구속하던 corset과 bustle은 그녀의 작품을 통해 여성의 자유와 아름다움을 상징하는 새로운 창조물로 거듭 태어난다. Westwood의 뛰어난 사고의 전환 방식은 여성성에 대한 억압의 상징으로 비난을 받아오던 역사적 대상을 여성의 성적 자유와 성적 권력의 상징으로 다시 생각하도록 만든다. Westwood는 기존의 고정 관념을 넘어선 새로운 아이디어를 가지고 이를 현실에 적용시키는 능력을 가진 디자이너이다. Westwood의 패션에서 가장 높이 평가되어야 할 점은 그녀의 작품을 통해 사람들의 생각하는 방식을 바꾸고 있다는 것이다.

현대 사회에서의 아름답다는 것, 문화적이라는 것, 그리고 진품의 기준은 변화하고 있다. 이 변화하는 시각을 패션을 통해 제시하고 있는 대표적인 디자이너가 Vivienne Westwood인 것이다. 그녀는 웃이라는 대상을 통해 예술과 문화의 상관관계를 바라보고

판단하는 시각을 변화시키고 있다. Westwood는 영국의 전통이라는 '진품'의 요소를 새롭고 비일상적인 비문화의 영역으로 이동시키고 이를 반 영국적인 요소들과 혼합시켜 새로운 문화를 창조해내고 있다. 이렇게 새롭게 창조된 Westwood의 패션은 독창적이고 단일적인 진품과 걸작품의 특성을 나타내며 현대 문화를 대표하는 하나의 예술로서 자리매김하고 있다. 또한 그녀의 디자인은 상업적이고 복제적인 비예술적 특성을 나타내지만 이는 그녀만의 해석을 통해 독창적이고 유일한 대상으로 제시되며 이는 예술로서의 가치를 지니고 더 나아가 그 시대의 문화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즉 Westwood의 패션은 문화적인 것과 비문화적인 것의 혼합을 통해 예술적인 것과 비예술적인 것의 사이를 오가며, 관조자들로 하여금 예술 작품을 바라보고 생각하며 가치를 측정하는 것의 새로운 시각과 방향을 제시하고 있는 것이다.

Vivienne Westwood의 웃을 입고 있는 여성들은 Westwood 자신의 또 다른 자아의 표현이다. 이를 통해 그녀는 자신의 정체성과 더 나아가 여성의 정체성을 찾고자 한다. 그녀들은 현 사회 속 남성들의 시각에 의해 존재하는 여성의 정형성을 탈피하고자 하며 여성에게 강요되어 온 전통적 이미지를 해체하고 Westwood만의 여성으로 새롭게 구축되고 다시 태어난다. Westwood의 웃과 그 웃을 입은 여성은 자신 속에 내재해 있는 또 다른 자아로 태어나며 이는 다시 현대를 살아가는 여성들을 대표하는 상징적 의미를 가지게 된다. 때로는 아름답고 때로는 도발적이며 때로는 유머스럽게 표현되는 Westwood의 여성들은 현재 여성들의 내적 자아와 정체성 그리고 그들의 욕구 표출이라는 상징성을 가지며 이는 Westwood의 웃을 통해 극적으로 분출되고 있다.

## V. 결론

5단계의 도상해석 패러다임으로 Vivienne Westwood의 대표적인 컬렉션을 분석해 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Vivienne Westwood의 영국을 비롯한 서양

의 역사적·문화적 자부심과 영국인으로서의 정체성이 그녀의 작품 전체를 지배하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으며 이는 작품 창작의 근본을 이루는 요소가 된다.

둘째, Vivienne Westwood는 영국의 역사와 문화를 단순히 과거의 찬양으로 남겨놓는 것이 아니라 현대에 맞게 그녀의 언어로 해석하여 재창조함으로써 과거의 역사와 문화를 새롭게 바라볼 수 있는 시각과 사고의 방식을 대중들에게 제시해 주고 있다.

셋째, Vivienne Westwood는 역사 속에 존재하는 과거의 사상과 다양화되고 있는 현재의 사상을 그녀의 독창적인 시각을 통해 조합하고 결합하여 관객에게 제시함으로써 과거를 다시 돌아보게 만들고 과거의 역사와 문화에 대한 존경심을 표현하고 있다. 이는 그녀만의 해석 방식인 풍자를 통해 관객에게 웃음을 통한 새로움과 신선함을 제시하여 줌으로써 그 효과를 높이고 있다.

넷째, 디자이너가 최종적으로 추구하고자 하는 바는 자신의 작품을 통한 인간과 그리고 세상과의 의사소통이다. 이는 인간의 삶을 좀 더 가치 있고 의미 있게 만드는 작업인 것이다. 웃은 인간이 착장함으로써 완성되는 대상이므로 인간 삶과의 관계를 떠나서는 존재할 수 없다.

본 연구의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예술 작품의 내재한 의미와 상징성, 예술가의 예술의지와 이를 통한 미의식을 올바르게 읽어내기 위해서는 단계에 따른 체계화된 해석 방법이 필요하며 이에 도상해석학 이론과 같이 이미지를 읽어내는 체계화된 이론이 필요하다.

둘째, ‘웃’이란 창작자의 예술의지를 표현하는 하나님의 예술적 대상으로 이를 통해 인간은 감정과 사상을 담아내고 있으며 당시 사회와 문화를 반영하고 후대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셋째, 패션 디자이너는 다양한 외적 인자들에 의해 영향을 받아 자신의 예술의지를 바탕으로 패션이라는 분야를 통해 자신의 사상과 철학을 담아내고 있다. 이를 통해 디자이너들은 자신의 내적 의지를 전달하고 있으며 더 나아가 세상과의 대화를 시도하고 있다.

넷째, 패션이라는 예술은 ‘웃’이라는 작품 하나만으

로 존재하는 예술이 아니라, 인체와의 관계를 통해 완성되는 예술이다. 즉 인간의 사상과 감정을 가장 직접적으로 담아내는, 현상학적 예술로서의 가치를 가지는 분야이다.

다섯째, 패션 역시 다른 예술 분야와의 만남을 통해 다양한 시도를 하고 있다. 21세기 예술은 자신의 영역을 넘어선 다양한 시도와 결합을 통해 새로운 방향으로 발전하고 있으며 이는 21세기 패션이 나아가야 할 방향이다. 미래의 패션은 단순히 입는 옷이 아닌 역사와 문화를 수용하고 전달하며, 인간의 감정을 표현하고 소통할 뿐만 아니라 타 영역과의 조화로운 결합을 통해 새로운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 참고문헌

- Panofsky, E. (1972). *Studies in Iconology: Humanistic Themes in the Art of the Renaissance*. Oxford: Westview Press, p. 3.
- Adams, L. (1996). *The Methodologies of Art: an Introduction*. 박은영 역 (2003). 미술사방법론. 서울: 조형교육, p. 53.
- Ripa, C. (1823). *Iconologia*. 김은영 역 (2007). 그림 속 비밀을 읽는 책. 서울: 루비박스, p. 78.
- Forssman, E. (1966). *Ikonographie und Ikonologie: Ikonologie und allgemeine Kunstgeschichte*. Ekkehard Kaemmerling edt. 송혜영 역 (2003). 도상학과 도상해석학. 서울: 사계절, p. 197.
- 백미서 (1984). E. Panofsky의 예술의욕 개념의 이해를 위한 고찰.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 4.
- 강미정 (2003). E. Panofsky의 미술사학에 대한 재고찰. 서울대학교 인문논총, 50, p. 213.
- Panofsky, E. (1983). *Meaning in the Visual Arts*. UK: Penguin Books, p. 55.
- Kaemmerling, E. edt. (2003). *Ikonographie und Ikonologie: Theorien Entwicklung, Probleme*. 저서 속 학자들의 견해를 토대로 본 연구자가 정리한 것이다.
- W. J. T. Mitchell은 그의 저서 *Iconology*에서 이미지에 관한 이론을 구축하려는 근대적 시도들을 다루고 있다. 그는 이러한 이론의 중심에 E. H. Gombrich, N. Goodman, 그리고 초기 L. Wittgenstein을 다루고 있다. Mitchell, W. J. T. (1987). *Iconology: Image, Text, Ideology*. Chicago: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Mitchell은 그의 저서 *Iconology: Image, Text, Ideology*에서 언어학에 Saussure와 Chomsky가 있다면 도상해석학에는 Panofsky와 Gombrich가 있다고 언급하고 있다. *Ibid.*, p. 8.
- Gombrich, E. H. (2000). *Art and Illusion*. Oxfordshire: Princeton University Press, p. 181.

- 12) Mitchell, W. J. T. *op. cit.*, p. 80.
- 13) *Ibid.*, p. 152.
- 14) Winner, E. (2004). *Invented Worlds: The Psychology of the Arts*. 이모영·이재준 역 (2004). 예술 심리학. 서울: 학지사, p. 148.
- 15) 류종옥 (2006). 언어와 이미지의 관계에 대한 미학적 고찰: *W. J. T. Mitchell*의 논의를 중심으로. 흥의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p. 84-89.
- 16) barathea: 양모 또는 견을 섞어 짠 옷감
- 17) Wilcox, C. (2004). *Vivienne Westwood*. London: V & A Publications, p. 80.
- 18) Watteau의 작품 Harlequin and Columbine(1716-1718) 속 복식의 형태와 패턴을 모방하고 있다. 특히 그림 속 가면과 삼각형의 패턴은 Westwood의 작품 속에 그대로 표현되고 있다.
- 19) *Ibid.*, p. 92.
- 20) *Ibid.*, p. 157.
- 21) 런던 중심가 Mayfair에 위치한 남성 주문 맞춤복으로 유명한 거리로 Winston Churchill, Lord Nelson, Napoleon 3세 등이 단골로 옷을 맞춰 입던 곳이다.  
자료검색일 2008.3.10. 자료출처 [http://en.wikipedia.org/wiki/Savile\\_Row](http://en.wikipedia.org/wiki/Savile_Row)
- 22) Wilcox, C. *op. cit.*, p. 153.
- 23) *Ibid.*, p. 134.
- 24) Anglomania는 영국에 대한 프랑스의 숭배를 의미하며 이는 문학, 언어, 옷 그리고 음식에 이르며 1780년대 유행했다. 프랑스의 맵시내는 스타일이 소박한 영국의 귀족 스타일로 대치되었다.
- 25) *Ibid.*, p. 135.
- 26) *Ibid.*, p. 160.
- 27) *Ibid.*, p. 109.
- 28) *Ibid.*, pp. 26-29.
- 29) *Ibid.*, p. 9.
- 30) Bolton, A. (2006). *Anglomania: Tradition and Transgression in British Fashion*. New York: The Metropolitan Museum of Art, p. 63.
- 31) Evans, C. and Thornton, M. (1989). *Women & Fashion*. London·New York: Quartet Books, p. 148.
- 32) 자료검색일 2008.3.10. 자료출처 <http://www.vivienne-westwood.com/flash.php>
- 33) Golbin, P. (1999). *Fashion Designer*. New York: Watson-Guptill Publications, p. 204.
- 34) Wilcox, C. *op. cit.*, p. 101.
- 35) Bolton, A. *op. cit.*, p. 12.
- 36) *Ibid.*, p. 63.
- 37) *Ibid.*, p. 65.
- 38) Wilcox, C. *op. cit.*, pp. 23-25.
- 39) *Ibid.*, p. 112.
- 40) *Ibid.*, p. 123.
- 41) Janet Arnold(1932-1998): 영국 태생의 복식 역사가 이자 무대의상 디자이너, 작가이다. Janet Arnold Award를 설립해 서양 복식에 대한 깊이 있는 연구를 추진했다.  
자료검색일 2008.3.10. 자료출처 [http://en.wikipedia.org/g/wiki/Janet\\_Arnold](http://en.wikipedia.org/g/wiki/Janet_Arnold)
- 42) 자료검색일 2008.3.10. 자료출처 <http://www.vivienne-westwood.com/flash.php>
- 43) Evans, C. and Thornton, M. *op. cit.*, p. 145.
- 44) Buxbaum, G. (1999). *Icons of Fashion: The 20th Century*. Munich · Berlin · London · New York: Prestel Verlag, p. 118.
- 45) Wilcox, C. *op. cit.*, p. 12.
- 46) Golbin, P. *op. cit.*, p. 200.
- 47) Vivienne Westwood 컬렉션 도상해석 단계별 분석을 위한 사진 자료는 Wilcox, C. (2004). *Vivienne Westwood*.와 <http://www.viviennewestwood.com/flash.php>로부터 사용하였다.
- 48) Wilcox, C. *op. cit.*, p. 161.